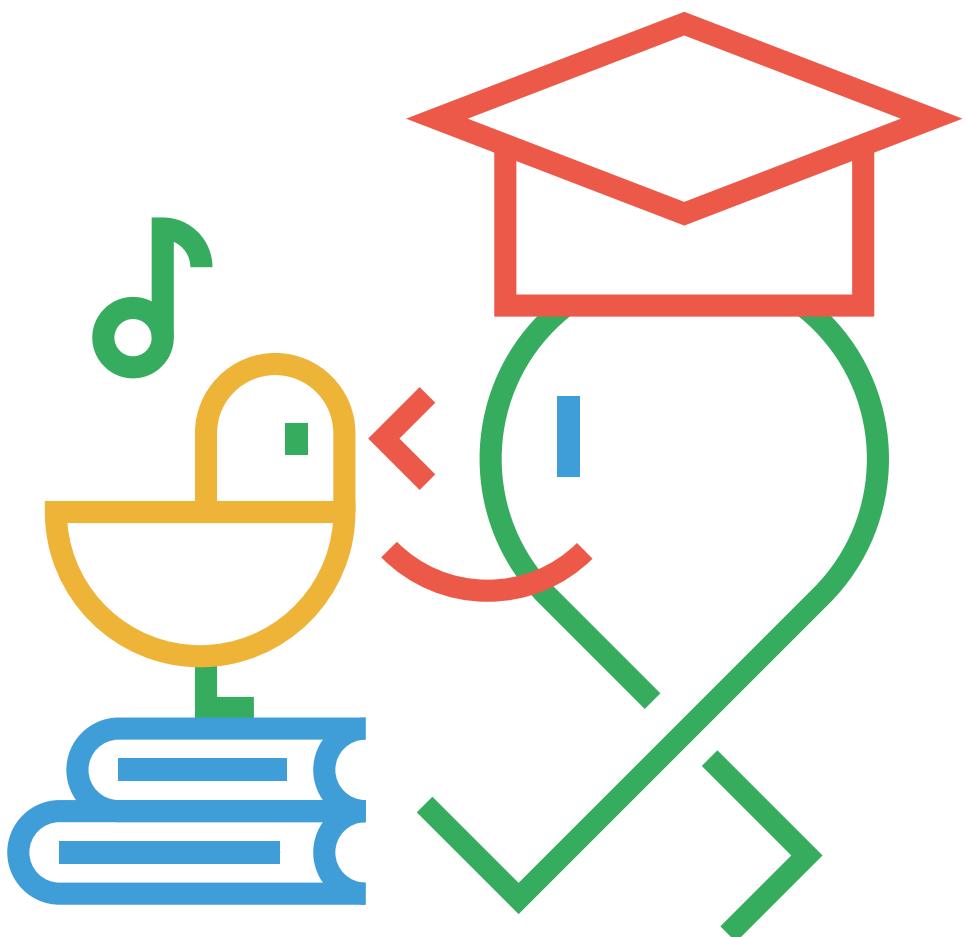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결과자료집



목 차

chapter. 1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003
chapter.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007
chapter. 3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 김성은 문화예술교육사	009
	청소년 심리방역 예술로 마인드 업데이트	
chapter. 4	대구미술관 : 변세진 문화예술교육사	016
	전시연계 프로그램	
chapter. 5	대구학생문화센터 : 임자경 문화예술교육사	023
	대구 에듀비즈 오케스트라	
chapter. 6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 박지연 문화예술교육사	029
	박물관 속 아틀리에 : 쓸데 있는 손짓들	
chapter. 7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 백지연 문화예술교육사	035
	청소년을 위한 영어 오페라	
chapter. 8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 정혜경 문화예술교육사	042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 II : 사진으로 바라보는 우리동네	
chapter. 9	부록	049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chapter.1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사업소개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함양 및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관련 인식 제고 · 문화기반시설 중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통한 교육대상 맞춤형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보급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으로 경력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년 3월 - 12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문화시설의 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 또는 문화기반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사업대상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사업참여	총 6개 기관

• 2020년도 선정 기관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황

기관명	문화예술교육사 : 전공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김성은 : 시각
대구미술관	변세진 : 시각
대구학생문화센터	임자경 : 전통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박지연 : 시각
(재)대구오페라하우스	백지연 : 음악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정혜경 : 음악

● 프로그램 추진 현황

1) 1차 간담회

일 시 9.17. 목
장 소 대구예술발전소
참석자 문화시설 실무자 6명
내 용 교육사 인력 관리 등 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 공유

2) 2차 간담회

일 시 9.18. 금
장 소 대구문화재단 대회의실
참석자 문화예술교육사 6명
내 용 컨설팅 희망 내용 등 인턴십 사업 참여 의견 공유

3) 워크숍: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올바른 교육생활

일 시 12.21. 월
장 소 대구예술발전소
참석자 문화예술교육사 6명
내 용 교구 개발 아이디어 컨설팅 등



chapter.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란?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확대되고 문화예술교육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법령에 자격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 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 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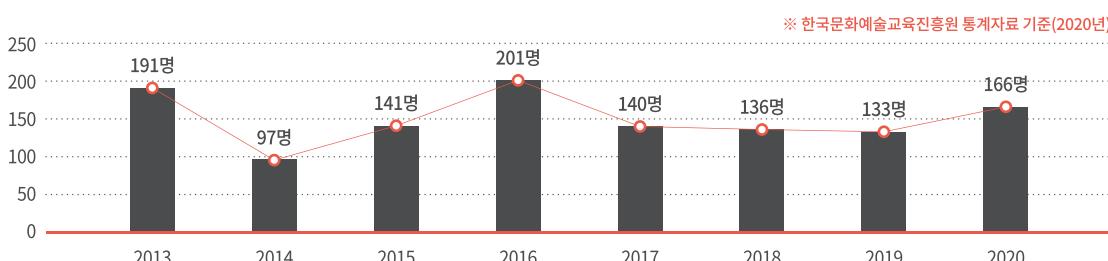
- 1.「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3.「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 대구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

기관명 :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http://arte.dgau.ac.kr>

교육분야 : 무용, 음악,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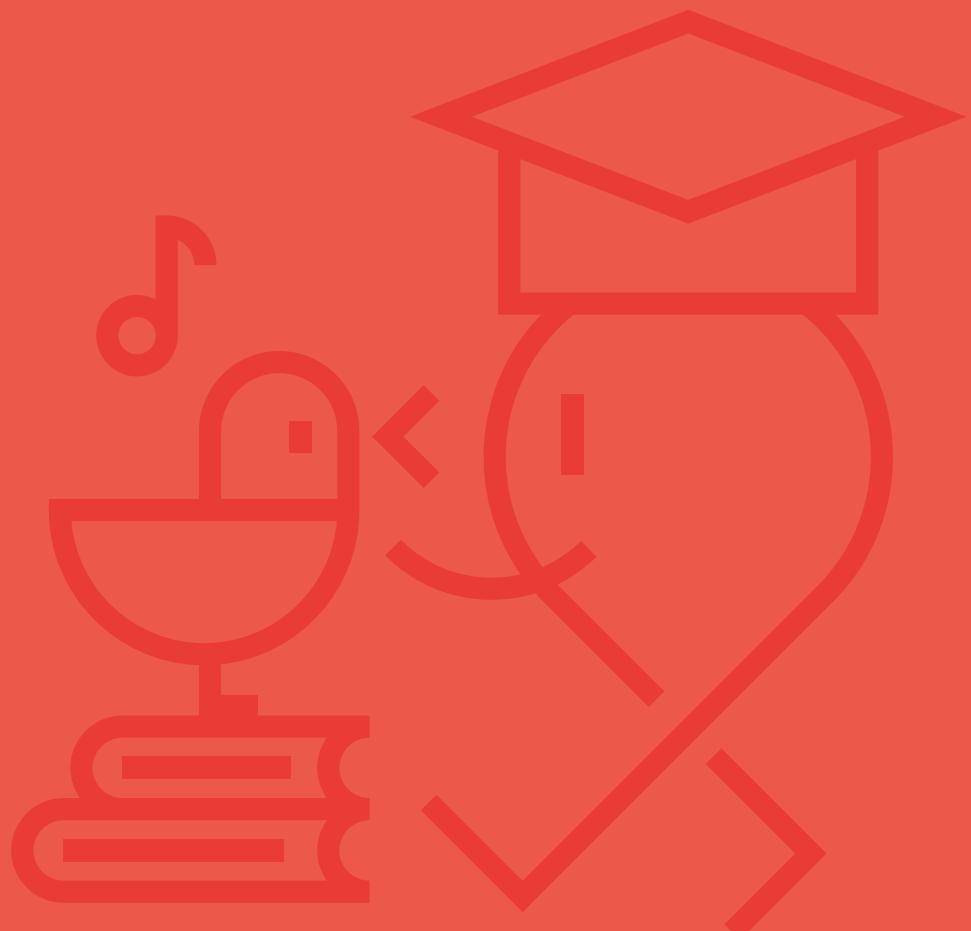
• 대구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현황(2급) - 합계 : 1,205명



chapter.3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 김성은 문화예술교육사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결과자료집

청소년심리방역 예술로 마인드 업데이트

기관명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프로그램명	청소년심리방역 예술로 마인드 업데이트
기관담당자	김보영
문화예술교육사	김성은
교육기간	2020. 8. 9. 일 - 11. 22. 일
교육장소	수성아트피아 미술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80)
프로그램 내용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성장기 아동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심리방역 활동을 목적으로 기획
교육대상	아동·청소년
교육강사	주강사 : 전혜주, 이상현, 노성경, 허태민

프로그램	분야
세부내용	프로젝트 미술

운영회차
총 15회 운영(3기수 × 5회)

프로그램 기획의도

- 예술 분야를 학교 내 교육적 영역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위안 및 생활 속 예술 활동이 주는 사회적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융합적인 다양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돋는 참여 기관으로의 방향성 전환

프로그램 구성 방향

-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라는 질병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을 작품 표현을 통해 적절하게 해소하도록 함
- 스스로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예술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함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연간 교육 일정 및 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사, 미술심리치료사 및 주강사 공개 채용
- 교육대상자 모집
- 교육대상자의 연령 확인 및 분류, 교육 진행 시 필요한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지역 내 일반인 대상 전시지원사업 파악 후 전시 지원 및 참여

인턴십**참여 후기****:문화예술교육사****■ 김성은 문화예술교육사님의 전공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설 갤러리 큐레이터로 시작하여 광고기획사의 디자이너,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이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당시 취업을 고려해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발급 받은 후 우연히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알게 되어 경남에서 첫 인턴십 지원사업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교육, 행정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한 번 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 2019년 사업에서는 어린이박물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일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이 가져오는 성과를 보며 성취감 및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설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의 사무행정에 관심이 생겨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재)수성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 인턴십 지원사업 수업 운영
- 이나라도움을 비롯한 지출 관련 행정 일체
- 예술아카데미 강좌 진행 업무 보조

■ (재)수성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나요?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찾은 휴관으로 프로그램의 일정도 몇 달씩 늦춰지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했는데
매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업시간이 제일 기다려지고 즐겁다”는 말을 듣게 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 지출 기안부터 서류 작업까지 일체의 행정적 처리를 담당하면서 행정업무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기획부터 예산 관리, 진행까지 전반적인 사업의 경험이 앞으로의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험 자체가 배울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 혹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코로나19로 인한 휴강 및 방역활동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전체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 하루 2번 방역을 비롯해
종일 환기 등 강의실 환경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 자체 휴관으로 인한 일정 조정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 온라인 수업을 감안했을 경우
키트 제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교육사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의 업무 수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관리자, 지역 전문가, 통합문화예술교육,
행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21세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일하는 수성아트피아 등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로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해 영어, 전산 등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볼 생각입니다.

인턴십
참여 후기
:기관 담당자

■ 수성아트피아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어떠한가요?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자체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상 평생교육사와의 차별이 어렵고, 문화예술교육사만의 전문화된 직업이 부족한 점,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 예술 전문 강사와의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몇 해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접하면서 예술계통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것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특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산분야, 외국어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펙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보이지만 기획 및
운영의 분야에서 타 전공생들과는 다른 깊이 있는 지식과 창의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및 전산 분야 등에서도 빠른 습득력을 보여 종국에는 타 자격 소지자나 문화예술 비전공자에 비해
더욱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사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관련 기관 단체가 많지는 않은 점 등으로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에게는 실질적 업무 능력을 심어주고
문화예술기관에는 해당 자격증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앞으로 수성아트피아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참여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과거 교육사업과 연계하지 않은 지원사업에 비해 해당 문화예술교육사가 매우 실질적인 업무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다만, 채용 시기가 이미 사업 계획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 문화예술교육사 본인이
가진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획이 불가능한 점 등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참여 후기****■ 참여 강사 : 전혜주**

- 2020년 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무얼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감정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아이들은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를 자신의 그림에 쏟아 부었습니다. 강의실은 수많은 색의 감정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은 행복해 하였습니다. 2021년은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차길 간절히 바랍니다.

■ 참여 강사 : 이상현

-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늘 즐겁다!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달리가, 이중섭이, 그리고 수많은 대가들이 우리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 뭐라고 할까? 궁금해집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상상력이 그리고 그 상상들을 표현하는 시간들이 행복합니다!

■ 참여 강사 : 노성경

- 코로나19 시대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제한된 자극만 있는 생활을 하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감상, 여러 가지 색채의 사용, 원하는 꾸밈재료의 사용은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기대, 힘듦, 좌절, 기쁨, 행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 수업 때는 전시될 완성작품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미술이 가지는 치유의 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 또한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참여 강사 : 허태민

-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명화들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조합하여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 참여 학생 : 김주원 / 부모 : 김해옥

-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생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5주의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30호 캔버스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서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그런 작품을 대형 갤러리에서 일주일간 전시하고 전시 작품을 위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주신다고 하니 아이와 보러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써주신 선생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혹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chapter.4

대구미술관

:변세진 문화예술교육사



017

program.2



전시연계 프로그램

기관명	대구미술관
프로그램명	전시연계 워크숍 및 전시연계 감상교육
기관담당자	정은정
문화예술교육사	변세진
교육기간	<연결고리> : 2020. 8. 1. 토 - 9. 20. 일 <새로운 탄생> : 2020. 9. 27. 일 - 12. 13. 일 <안녕 담씨!> : 2020. 11. 14. 토 - 12. 19. 토
교육장소	대구미술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프로그램 내용	전시 연계 창작 워크숍 / 전시 감상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및 가족 / 일반인
교육강사	예술강사: 김미향, 이정미, 이해윤, 정태희

프로그램	분야
세부내용	전시연계 워크숍 : 연결고리_<정재규_빛의 숨쉬기>전 / 나의탐구_<팀 아이텔_무제>전 / 새로운 탄생_<최정화_카발라>전 전시 감상 프로그램 : 팝업형 교육공간 담씨네 교육상점 / 안녕 담씨! :<메이드 인 대구 II>, <조덕현_그대에게>
	운영회차
	총 50회 운영 - 연결고리_<정재규_빛의 숨쉬기>전 : 4회 - 새로운 탄생_<최정화_카발라>전 : 12회 - 안녕 담씨! <메이드 인 대구 II>전 : 3회
	- 나의탐구_<팀 아이텔_무제>전 : 4회 - 팝업형 교육공간 담씨네 교육상점 : 24회 - 안녕 담씨! <조덕현_그대에게>전 : 3회

프로그램 기획의도

미술 작품은 영화나 책과 달리,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기도 하고, 미술관에 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예술작품은 꼭 어렵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미술 작품은 ‘작가’의 이야기이자,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고,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예술 작품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또 이와 관련하여 편하게 이야기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프로그램을 기획 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방향

- 참여자들이 작가와 작품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단순히 감상을 넘어, 참여자가 작가의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전시연계 워크숍]

■ 연결고리_<정재규_빛의 숨쉬기>전

-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과거’의 기억 사진과
‘현재’의 미술관 사진을 결합하여 나만의 작품 제작하기
- 도입 : 예술가의 ‘조형사진’ 이해하기
 - 전개 : 나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조형사진’ 표현하기
 - 감상 : 함께, 서로의 ‘조형사진’ 공유하기

■ 나의탐구_<팀 아이텔_무제>전

- 나의 공간,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를 회화로 표현하며 자신을 탐구하기
- 도입 : 팀아이텔 작품 이해하기
 - 전개 : ‘나’를 탐구하며, 회화 표현하기
 - 감상 : 함께, 서로의 작품 공유 및 감상하기

■ 새로운 탄생_<최정화_카발라>전

- 예술가가 사용한 흔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족과 함께 가족의 소망이 담긴 작품으로 표현하기
- 도입 : 최정화의 <카발라> 작품 이해 및 감상하기
 - 전개 : 가족의 의미를 담은 작품 표현하기
 - 감상 : 함께, 서로의 작품 공유 및 감상하기

※ <새로운 탄생> 워크숍 진행 영상은 대구미술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 감상 프로그램]

■ 팝업형 교육공간 담씨네 교육상점

- 전시동 유휴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전시감상교육
- 관객에게 전시감상 카드 제공

■ 전시 연계 어린이 감상교육 <안녕 담씨!>

- <메이드 인 대구 II>전
-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잊고 있었던 힘!
나만의 ‘청춘력’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감상방법을 익히기
- <조덕현_그대에게>전
- 미술 작품으로도 거대한 서사 구조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예술가의 상상을 다시 나만의 이야기로 표현하기

인턴십
참여 후기
:문화예술교육사

■ 변세진 문화예술교육사님의 전공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저는 서양화를 전공한 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화 분야를 전공했지만, 학부시절부터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육이라는 분야가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가치 있다고 느꼈고, 참 좋았습니다. 이에 교직 수업들을 들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던 와중에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련한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평소에 근무하고 싶었던 대구미술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감사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 대구미술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대구미술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 전시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와 작품의 이해를 돋는 프로그램으로, 감상 및 표현활동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기획을 하였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준비하는 것 외에도 미술관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학예사 선생님과 강사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며 전시감상카드 만들기도 하였으며,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악동 뮤지엄>’와 같이 교육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참여하며 아이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 대구미술관에서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나요?

-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 가운데 전시연계프로그램인 <새로운 탄생>에 참여한 가족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나’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평소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새로운 공간’에서, ‘예술 작품’이라는 매개를 바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와 같은 반응을 들을 때도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 혹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웠고, 기존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상황에 따라 자주 수정해야했던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교육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예술 간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통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맞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람들 간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들에게 자기 자신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예술을 연결하여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생긴 ‘예술’이라는 벽을 허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독립된 한 예술가로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그들이 가진 벽을 허물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삶을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 우선 현재 하고 있는 대학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 활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술을 매개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며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인턴십
참여 후기
:기관 담당자

■ 대구미술관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어떠한가요?

- 대구미술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본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기관의 다양한 범주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기획 및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인턴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미술관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없이 지원한 지원자들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 앞으로 대구미술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참여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공공기관으로서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선발과정을 통해 기관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인턴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든든하고,
더욱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예술을 다루는 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창작 워크숍,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기**

- 전시 연계 가족 워크숍 새로운 탄생_<최정화_카발라>전

■ 참여 강사 : 김미향

- 기존 대상별 수업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한 워크샵은 의미가 새롭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작품연계활동은 가족과의 소통을 중점으로 서로 시간을 갖고
어른과 아이의 역할이 나눠진 것이 아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아이가 표현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부모도 참여자로서 나의 것을 표현하며 우리가족의 바라는 바를 함께 이야기하며 작품으로
만들어나간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아버지의 역할이 새롭게 와 달았습니다. 주로 미술관에 와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의 가족들이
들어주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작품을 통해 우리가족이 바라는 것들을 플라스틱 바구니를 쌓으며 우리가족의 소망을 담아 낼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리 가족을 ‘나무’로 비유하며 코로나 가운데 건강도 삶도 더욱 풍성해 지면 좋겠다는 것을 모양을
만들어가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었다고 기억해주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문제로 철저한 소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두 배의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준비
기간이었지만, 수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여자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 미술관이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
보람 있었습니다.

■ 참여 부모 : 이00

- 매번 아이들만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하곤 했었는데,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활동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담긴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가족만의 이야기를 만드니 새로운
우리가족만의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작품을 만들어 낸 것처럼 ‘작가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에 작품이
더 와닿았고, 작품 역시 친근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속에 담긴 ‘카발라’라는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사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은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혀 준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몸으로 체험하고, 눈을 맞추며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에게 진하게 새겨졌습니다.

코로나로 어떠한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좋은 기회로, 대구미술관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참여한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chapter.5

대구학생문화센터

: 임자경 문화예술교육사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결과자료집

대구에듀비즈오케스트라

기관명	대구학생문화센터
프로그램명	대구에듀비즈오케스트라
기관담당자	이세현
문화예술교육사	임자경
교육기간	2020. 6. 15. 월 - 12. 8. 화
교육장소	대구학생문화센터 실내놀이마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81)
프로그램 내용	직장인 오케스트라 합주 프로그램 운영
교육대상	직장인
교육강사	지휘자 : 이정대 / 바이올린 : 김수지 / 비올라 : 박종영 / 첼로 : 오국환 콘트라베이스 : 우현수 / 플루트 : 김민희 / 클라리넷 : 정혜진

프로그램	분야
세부내용	음악, 합주, 오케스트라 활동

운영회차
총 31회 운영(1기수 × 30회 교육, 1회 결과발표회)

프로그램 기획의도
- 직장인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정착
-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퇴근 이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참여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구성 방향
- 단순 1인 악기 연주가 아닌 합주 수업을 통한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파트별 악기 교육
- 1인 연주가 아닌,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 기회 제공

인턴십

참여 후기

:문화예술교육사

■ 임자경 문화예술교육사님의 전공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가야금병창 전공으로 대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한일문화교류회 등에서 15분~30분 이내의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업무를 자연스레 배우면서 귀국 후 본격적으로 기획 업무에 관심을 두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문화예술 교육·기획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본격적으로 기획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어 준비 중이며, 공연 및 레슨, 행정 업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등 여러 업무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 거주하던 지역을 벗어나 대구 시내권에서 처음으로 일을 구하려는데 당시 인턴십 사업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경험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턴십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 내부 프로그램 사용법 숙지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운영 회의, 예산 변경 신청,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 수업 준비, 결과발표회 회의 및 준비 등 여러 업무를 하였습니다.

■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나요?

- “나의 일주일은 화요일이 중심이었다.”라는 메모를 받았을 때입니다. 화요일은 센터에서 합주 수업이 있는 날인데, 우리 프로그램은 직장인 만을 대상으로 오후 6시-저녁 9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 참여자에게 화요일이란, ‘합주 활동을 위해 나의 저녁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는 그런 요일’인 것입니다.
직장인의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기에 이 메모에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 혹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올해는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듯, 코로나19로 일정의 변화가 많아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시작은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10월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인코딩에 업로드에 오프라인 수업 준비까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이 늘어나 심적 부담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서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단순 체험이 아닌,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판’을 펼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 대구시 안에서도 구, 군의 기초단위 지역의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이번 직장인 대상처럼 특정 교육대상 계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인턴십
참여 후기
:기관 담당자**

■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어떠한가요?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관한 생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을 갖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기관은 대구시민을 위한 교육공동체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사업 참여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매우 뜻깊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우리 교육기관과 교육공동체 간의 교육사업의 매개자, 촉진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기**

■ 참여 강사 : 이정대 지휘자

- 대구에듀비즈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음악을 사랑하는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재발견하였으며, 직장 생활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휘자로서 참여한 저도 여러 단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면서 음악이라는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개인에게는 예술적 기량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고, 연습을 통한 결과물을 연주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서 음악 예술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참여자 : 문은미

- 전공자도 아니고 취미로 하기엔 감히 상상도 못할 오케스트라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구에듀비즈오케스트라는 삭막했던 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자 : 박성현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해 왔던 그 어떤 활동보다 제게 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네요. 1~2회가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발전할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자 : 황철희

- 소규모 바로크 양상들을 하다가 오케스트라를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더 어렵고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양상들에서는 나를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는 것을 배웠다면 오케스트라에서는 내가 어떻게 조화롭게 스며들 수 있을까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어렵고 또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chapter.6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 박지연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 속 아틀리에 - 쓸데있는 손짓들

기관명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섬유박물관
프로그램명	박물관 속 아틀리에 - 쓸데있는 손짓들
기관담당자	이미지
문화예술교육사	박지연
교육기간	2020. 8. 11. 화 - 12. 13. 일
교육장소	대구섬유박물관 비즈니스센터 114호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대구섬유박물관)
프로그램 내용	버려지는 원단을 예술로서 가치있게 만들어 보는 수업
교육대상	초등학생, 성인
교육강사	주강사 : 최근애, 최민경 / 보조강사 : 장윤선, 차지원 / 참여작가 : 최민경

프로그램	분야
세부내용	미술

운영회차

총 20회 교육운영(5기수 × 4회) 및 결과전시 1회

프로그램 기획의도

산업화 후 버려지는 섬유들을 활용해 개인의 생각이 녹아든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섬유에 대한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적 사고방식을 경험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프로그램 구성 방향

- 초등학생

재료인 섬유를 가지고 놀아보면서 재료의 특성을 알아봄

그 후 나를 섬유의 특성을 활용해 소개하고, 섬유작가의 작품을 알아 본 후 작가처럼 나의 섬유작품 만듬

- 성인

‘최민경’섬유작가와 함께 현대미술을 이해한 후 나의 이야기를 꼬라쥬 기법을 통해 섬유작품으로 표현

- 참여작품 결과전시회 개최 및 온라인 전시

초등 및 성인들의 참여작품을 박물관 전시홀과 온라인으로 전시하여 참여자들의 전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초등학생

1차시 : 섬유에 대해 이해하고 섬유의 재질과 특성을 통해 자기소개

2차시 : 섬유로 놀아보고 직접 게임도 만들면서 특성 이해하기

3-4차시 : ‘최민경’섬유작가가 자신에게 충격을 주었던 동물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보고

이해 한 후 교육생들도 동물을 활용하여 섬유꼬라쥬 해보기

- 성인

- 1차시 : 강의를 통해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제한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드로잉 게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미술을 체험
- 2-3차시 : 자신이 하고싶은 이야기(드로잉 게임으로 알아본 교육생 자신의 생각 포함)를
섬유꼴라쥬 기법으로 표현, 발표
-

인턴십

참여 후기

:문화예술교육사

■ **박지연 문화예술교육사님의 전공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전공은 회화이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주로 시각예술분야 작가로 다양하게 활동했습니다.
전공 때문인지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전시를 통한 개인 작품활동뿐 아니라 재미있는 전시아이디어나 공간이 있으면 기획자로서 전시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증으로 여러 전시에 참여하면서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운영해야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과 그때 배웠던 수업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는 도중 인턴십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섬유박물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섬유박물관의 특색을 활용한 수업이면 좋을 것 같아 섬유기관에서 기증받은 남은 섬유를 활용한 수업을 기획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의 큰틀을 잡은 후 강사선생님들과 세부내용과 흐름을 잡았습니다.
후에 교육의 진행을 위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등 운영에 힘을 썼고 전체 기수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전반적인 일을 했습니다.

■ **섬유박물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나요?**

-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 후 통과 되었을 때 제일 보람 있었습니다.
섬유박물관의 특색을 활용하고 이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의 전공분야를 접목시킨 수업을 기획하느라 기관의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생각하는 품이 많이 들어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기획이 통과됐을 때 그간의 고생을 인정받는 느낌이라 제일 보람찼습니다.

■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 혹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진행과 마무리가 반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넉넉하지 않은 기간 안에 기획을 진행해야 했고, 중간에서 서로진 간의 이해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좁혀야 했기에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저는 문화예술교육사란 자격제도의 정의처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뿐 아니라 기획력, 운영능력 또한 갖추어야 되는 자리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면서 문예사로서 요구되는 본인의 다양한 능력을 펼치기 위해선 기획을 잘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획 후엔 운영을 위한 조율자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걸 업무를 통해 몸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느낀 저 나름의 답변은 문예사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기획자로서의 중간자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 이번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직접 기획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속한 기관 뿐 아니라 간담회와 연수를 통해 여러 기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여러 기관에서 문예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또한 직접 문화예술교육사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인턴십
참여 후기
:기관 담당자**

■ 섬유박물관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어떠한가요?

- 각 문화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문화공간에 필수적 인력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섬유박물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 참여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분야 및 관심도를 반영한 교육기획이 기관의 담당자로서는 참신한 접근이었습니다. 역량있는 문예사들이 많은 문화기관에 파견되어 박물관 및 문화기관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일명 '코로나시대'가 요구하는 문화기관의 역할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 생각됩니다.
- 이 사업의 경우, 재직기간이 6개월 정도라 기관의 성격을 파악하고 기획안을 구상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니 10개월 이상 24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교육 기획으로 국한되어 기관 및 사업담당자와 호흡을 맞춰 기획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중장기적인 접근과 문예사들의 자발적인 기획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기**

■ 참여 강사 : 최근애

- 아이들은 즐겁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듯합니다. 수업시간에 시키는 쓸데없는 짓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내 앞장서서 마음 가는대로 즐깁니다. “그림도 선물처럼 리본으로 묶을래요” 지나가면서 톡 던진 장난스러운 말에 “어?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라고 답하니 “그냥 해 본 말인데 히히힛”하고 까르르 넘어갑니다.
- 내년에도 또 놀자는아이들의 말에 수업도 놀이처럼 즐기게 해주마 하던 마음이 그들에게 잘 전해졌나 봅니다.

■ 참여 학생

- 초등반, 안서영

재미있었는데 빨리 끝나 아쉬웠다. ‘쓸데없는 손짓들’을 배우고 나니 내 꿈이 확실해 진 것 같았습니다.

- 초등반, 정유빈

버려지는 섬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섬유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초등반, 이유진

버려지는 섬유로 작품도 만들고 재미있게 놀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초등반, 정준형

필요없는 천으로 필요있는 것을 만들어 신기했습니다.

- 성인반, 이영숙

작품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발견한 거 같아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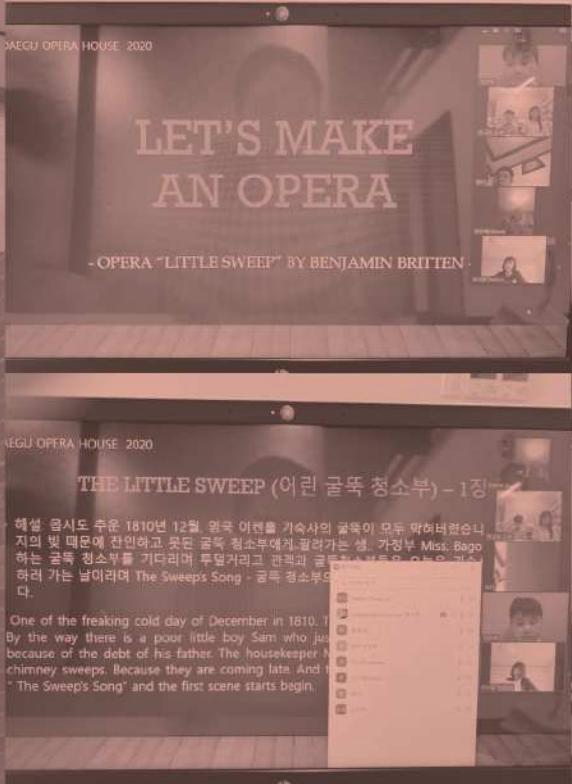
chapter.7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 백지연 문화예술교육사



chapter.7



청소년을 위한 영어 오페라

기관명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프로그램명	청소년을 위한 영어 오페라
기관담당자	김민정
문화예술교육사	백지연
교육기간	2020. 8. 8. 토 - 11. 28. 토
교육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별관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프로그램 내용	<p>프로그램 주제 : 예술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오페라 체험 교육</p> <p>프로그램명 : 오페라를 만들자! (Let's Make an Opera !)</p> <p>프로그램 구성 방향 : 오페라에 대한 기초지식을 다양한 체험(음악활동, 연극활동, 감상활동 등)을 통해 배우고, 오페라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예술 체험 교육 실시</p>
교육대상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교육강사	주강사 : 장지은, 김현정, 정민경, 김현서

프로그램	분야
세부내용	음악
운영회차	
총 16회 운영(4기수 × 4회)	

프로그램 기획의도

- 극장과 연계한 청소년 예술 체험교육 실시
- 문화예술교육사와 연계한 현장 예술 실무 교육 운영

프로그램 구성 방향

오페라 공연예술에 최적화 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기수별 프로그램마다 직접 오페라를 감상하고 무대투어를 체험하는 예술교육

- 학생 참여형 예술체험 교육 프로그램
- 영어와 연극, 성악 교육이 결합된 융합예술교육
- 수업이 모여 공연이 되는 프로젝트 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

주제	1회기 오페라를 만드는 사람들	2회기 오페라를 만들자. 1	3회기 오페라를 만들자. 2	4회기 오페라 공연하기
내용	예술분야 진로교육	- 배역 정하기 - 노래 배우기	- 연극 활동 - 프로젝트 수업 - 예술체험활동	- 영어 오페라 - 굴뚝 청소부 샘 공연하기

수업형태

모둠별로 학생들을 편성, 오페라 감상, 무대투어 체험하는 교육 실시

인턴십

참여 후기

:문화예술교육사

- 박지연 문화예술교육사님의 전공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좋은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예술적 자극이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홈페이지를 접속하던 중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역량을 쌓으면서 예술기관에 근무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 수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진행과 결과물 제작에 이르기까지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 수업 과정의 전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무적인 사항들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나요?

- 오페라라는 장르가 어린 학생들이 공감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가지고 가창과 연기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워졌을 때 갑작스럽게 전환 된 온라인 수업 체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준 학생들에게 감사했습니다.

■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 혹은 어려움은 있으셨나요?

-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난감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실행할 수 없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 가창과 연기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느끼기도 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에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예술교육을 통한 정신적인 풍요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 예술경영, 문화예술행정과 관련된 직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예술기관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참여 후기
:기관 담당자

■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어떠한가요?

-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관리할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교육사의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술교육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2급만 주어지고 있는 자격제도를 2급 자격 취득 후 관계 법령대로 현장 근무연수에 따라 1급 자격 이수 기관과 과정을 열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제도의 취지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사업 참여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대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술기관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현장실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과 문화예술교육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강사와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수업방식을 온라인으로 변환하여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수업운영이 문화예술 교육사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매우 좋은 취지의 사업이며, 현장중심의 문화예술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예술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문화예술교육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더 좋은 예술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참여 후기****■ 참여 강사 : 장지은**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페라를 만들자>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은 한 학교와 협력하여 수업하는 형태였지만 올해는 자체적인 모집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이 <오페라를 만들자>는 단순히 음악을 배우기보다 하나의 오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그리하여 처음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 4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과연 협동하고 협력하여 오페라를 만들고 공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클래식이라는 주제 자체가 K-POP에 노출이 되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다양한 오페라 공연을 이미 접하여 수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었고 오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형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술교육의 특성상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차시가 온라인 수업으로 갑자기 변경되어 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범유행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을 이번에 인지하고 예술교육 강사로서 온라인 교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학기였습니다.

요즘의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은 이론적인 수업들과 다르게 다양한 분야가 하나가 되어 폭넓은 체험형 예술교육 위주의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정 연령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저 또한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참여 학생, 부모 : 이슬아

- 선생님들과 함께 한 영어오페라 수업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페라하우스에 가지 못할 때도 선생님들이 줄으로 수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도 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chapter.8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 정혜경 문화예술교육사





문화 낮 스트리

주관

대구문화재단

후원 Colorful
DAEGU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 II 사진으로 바라보는 우리동네 성과공유회 및 수료식

2020. 11. 25 ◎ 갤러리 글로



행복북구문화재단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 II : 사진으로 바라보는 우리동네

기관명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프로그램명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 II : 사진으로 바라보는 우리동네
기관담당자	이현종
문화예술교육사	정혜경
교육기간	2020. 7. 1. 수 - 11. 25. 수
교육장소	생활문화센터 연습실(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
프로그램 내용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를 접목한 사진 기초교육 및 지역문화 역량 강화 교육
교육대상	북구 주민 누구나
교육강사	주강사 : 김승열 보조강사 : 전운경, 박정민

프로그램	분야
세부내용	생활문화

운영회차
총 18회 운영(1기수 × 18회)

프로그램 기획의도

- 누구나 접하기 쉬운 소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찾아보고,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구의 모습을 통해 지역민의 삶을 조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
- 지역 사회의 문제 및 이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출하고, 교육을 통해 그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함

프로그램 구성 방향

- 참가자들의 사진의 기초 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의 명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으며 토론을 진행, 지역의 관심도를 높인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사진의 기초 교육 제공
- 지역 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의 사진 실습 교육
- 사진을 통한 토론 및 글쓰기 교육
- 결과물 전시를 통한 성취감 고취
- 참가자들의 생활문화 참여기회 확대 방안 마련

인턴십
참여 후기
:문화예술교육사

■ 정혜경 문화예술교육사님의 전공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경입니다.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 재학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점을 위한 수강이었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문화예술기관에서 해당 직무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인턴십 참여 이전 문화예술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피아노 학원에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며 교육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교육생에 대한 경험까지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 대학 졸업 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하였고 인턴십 프로그램이 그 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항상 문화예술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보았었고 좋은 기회로 작년에 문화예술 교육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분야의 교육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올해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사진으로 바라보는 우리동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총 18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약 한 달 휴강을 하였지만 수강생들의 열정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으로 남기고, 우리 지역의 모습들에 대해 토론하며 우리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나요?

- 수강생 모집기간 때부터 제일 걱정이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한 참여율 저조였습니다. 하지만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분, 사진촬영에 관심 있는 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분 등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모여 한자리에서 융화되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한 달간 휴강했을 당시에도 밴드와 단체 톡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등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 혹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처음 기획 당시 제 전공인 음악과 사진, 지역문화는 많이 달라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와 사진, 지역문화에 관한 공부도 필요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거나 하여 중장년층과 함께 해온 적이 없어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강사선생님들의 도움과 조언 덕분에 함께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자, 교육자로서 재능이 있어야 하며 행정적으로도 능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르를 정하지 않고 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문화와 접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단 것을 깨달아 음악과 지역문화가 접목된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활동 관련 기획도 해보고 싶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아 예술 활동을 하는 공연장이나 재단에서 직접 기획한 사업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인턴십
참여 후기
: 기관 담당자

■ 행복복구문화재단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어떠한가요?

-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 감각이 부족한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기획을 하고, 업무의 전반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실무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문화기관에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라 생각 됩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한해 2,000명 가까이 배출되어지며, 2급 자격증 소지자가 20,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자격증 자체의 의미 보다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행복복구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참여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참여 단체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사진을 통해 지역을 바라보고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했지만 문화예술교육사의 노력과 열정으로 끝까지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신 수강생 분들의 행복한 모습들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는 전체 사업의 운영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강사들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강사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교육 후 자체 모임을 가지면서 북구를 알리는 문화전령사 역할을 자처할 정도로 열정을 보여주며 교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참여 후기****■ 참여 강사 : 김승열**

- 모두에게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의욕 있는 모습으로 지역의 곳곳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 강사 : 전운경

- 저 또한 대구 북구 거주민으로써 이번 프로그램에 강사가 아닌 참여자의 느낌으로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 참여 수강생 : 강정문

- 정년퇴직을 하고 남는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까 생각하던 중 사진을 좀 더 잘 찍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살고 싶은 동네, 멋지고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참여 수강생 : 김현자

- 전반적인 수업 내용도 알차고 지도강사님 이하 여러 회원들의 화기애애한 친밀도가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지역문화활동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내용을 토대로 북구소식을 SNS 통해 자주 알리는 지역문화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 참여 수강생 : 황보순

- 평소에 문화적 갈증이 많았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하여 사진촬영기법도 습득할 수 있었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문화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부록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 제16조의2제1항 관련

등급	자격 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1급 문화예술 교육사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 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 문화예술 교육사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급
문화예술
교육사

마. 「무形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形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形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形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대학 등에서 이수하거나 마친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위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은 학점, 그 외 교육기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라.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3. 위 표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결과자료집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처	(재)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garte.or.kr
주 소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문 의	t. 053 430 1281-4 / f. 053 422 1219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목적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